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방인은 주인공이 되기 어렵습니다. 주류로부터 소외되어 늘 주변에서 맴돌 뿐입니다. 그래서 주변인은 소외의 극복을 위해 공정과 정의를 갈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희생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례는 이방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의 종이 되려는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야훼 하느님의 의로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민족의 사도인 바오로는 불순종한 이방인들에게 하느님의 크신 자비를 선포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방인인 여인의 믿음을 높이 사 그녀의 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여기서 관건은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극적입니다. 여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침묵을 지키시던 주님께서서는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여인에게 암울한 침묵의 순간이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희망의 소멸이 아니라, 생명의 불꽃이 새로이 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어서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고 받고 싶은 여인의 고백은 절절합니다. ‘식탁의 부스러기’는 주님 권능의 부스러기이며, 주님 식탁의 은총에 대한 온전한 의탁입니다. 의탁은 충실한 믿음에서 솟아나는 용기입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하느님의 자비와 치유입니다. 버려진 이방인이 하느님의 자비를 통해 주님의 집으로 인도됩니다. 주님의 집, 기도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의 길을 통해 당신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곧 하느님의 의로움입니다.

형제 여러분! 사랑의 길은 하느님을 향한 갈망과 이웃을 향한 연민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조명하고, 바라보는 것을 배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영광과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거부, 배신, 버림받음, 외로움, 피땀이 흐르는 고통으로 점철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방인들과 같은 처지로 거부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박해당하셨습니다. 소외된 주변인이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느님을 향한 더욱 강렬한 갈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갈망은 자연스럽게 인간을 쳐다보게 합니다.

인간에 대한 그리스도의 연민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외된 이들, 버림받은 이들, 주변인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요즘 비대면 상황이라 이웃의 얼굴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 대한 충실한 믿음으로 사랑 가득하게 쳐다보면 우리의 이웃이 보일 것입니다. ‘외면당한’ 예수님의 처지에 놓인 이들을 보고자 하는 소명의 길을 걸어야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주변에 머무는’ 우리 이웃과 “주님의 사랑의 부스러기”를 함께 나눌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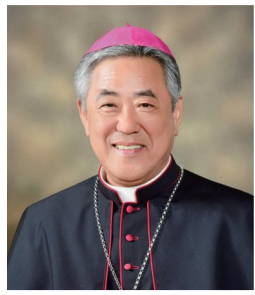


김종훈 엠마누엘 신부 | 광주가톨릭대학교



제 1 독 서 이사 56,1,6-7
화 답 송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제 2 독 서 로마 11,13-15,29-32
복 음 마태 15,21-28

주일 전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모두 그만그만 별고 없으신지, 이렇게나마 안부를 물어봅니다. 미사조차 못 했던 짝 막힌 시간을 넘어, 그래도 이젠 답답하긴 하지만 마스크를 쓴 채 말씀도 듣고 성체도 모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주간은 가톨릭교회의 4대축일 중 하나인 성모 승천 대축일을 경축하고 있습니다. 이 축일의 가장 큰 의미는 성모님처럼 그 어떤 기막힌 순간이 오더라도, 오직 하느님께 믿음을 굳게 둘 때 그분께서 손을 내미시어 우리를 반드시 당신 은총의 나라로 들어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맹렬히 떨치던 어느 날 오후, 어둠이 시작되는 바티칸 광장에 비를 맞으며 홀로 묵묵히 기도소로 향하시던 교황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마구 저질러진 지구촌 생태파괴가 결국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여금 인간을 공격케 했으니, 어찌 보면 코로나보다 더없이 강한 인간 탐욕의 독성이 우리 스스로를 파멸시키기 전에 고맙게도 코로나가 미리 경고해준 셈이기도 합니다. 그날 교황님의 간절한 기도 또한 이 같은 맥락이었고, 성모님께 청하는 기도로 위협에 처한 온 인류의 간절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런 황망 중에도 우리는 일상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열악한 일터와 병상의 와중에서 교도소 수감실에서 모두 절망과 기쁨, 번민과 환희를 반복하며 일상을 꾸려갑니다. 저도 그동안 하나밖에 없는 친형의 상을 당했고 미국이라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황망함 속에서도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 흰칠한 이마의 젊은이들 그리고 푸른 산과 흐르는 강물을 보며 커다란 위안을 받습니다.

나라는 깨졌지만 산하는 여전하니(國破山河在)

성 안에도 봄이 왔다고 초목이 우거지네(城春草木深)

그 옛날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랬듯이 나라의 비운을 겪었던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의 춘망(春望) 첫 구절처럼 코로나 와중에도, 물난리 속에서도, 혼란한 정치 현실 안에서조차 하느님께서 우리를, 우리 백성을 생명의 길 부활의 삶으로 부르고 이끄시니 옆드려 감사의 눈물로 답할 뿐입니다.

교구보를 통해 지난 대림절에 드린 편지에서, 교구청 신축을 위해 모두 사순 첫 주(3월 1일)에 봉헌 약정서 제출을 청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추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신청사 추진위에서는 그동안 착실히 일을 진행시켜 8월 말에 아주 훌륭한 설계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위해 언제 모금을 다시 시작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봉헌의 뜻을 밝혀주셨으니 고마움을 전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이르고 우리 교우들이 예전처럼 성당에서 편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단계가 되기까지 조금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령께서 공사가 지연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교우들의 신앙을 더욱 굳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아직 미사에 참여치 못하는 많은 교우들께 메일로, 문자로라도 자주 안부를 묻고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주님 안에 건강 평안하소서.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1코린 13)

2020년 성모 승천 대축일에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배기현)

사도행전 읽기 10

염철호 요한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헤로데 아그리파스의 죽음(사도 12,20-23)

베드로의 탈출 소식을 들은 헤로데 아그리파스 1세(사도 25,13에 나오는 아그리파스 2세의 아버지)는 파수병들을 처형한 뒤 유다를 떠나 카이사리아로 내려갑니다. 바닷가에 위치한 이곳 카이사리아는 유다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과 그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었습니다. 루카는 헤로데가 이곳에 내려왔을 때 티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몹시 화가 나 있었다고 전하는데, 아마도 로마 황제와의 친분으로 임금이 된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기 때문인 듯합니다. 헤로데는 이 문제를 총독과 의논하고자 총독 관저가 있던 이곳으로 내려온 듯합니다.

하지만 티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로데 아그리파스의 눈 밖에 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유다 지방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티로와 시돈 사람들은 뜻을 모아 화평을 청하러 올라옵니다. 적잖이 화가 풀린 헤로데는 화려한 임금 복장을 하고 연단에 앉아서 그들에게 연설하는데,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 같다고 외칩니다. 이로 인해 하느님의 진노를 사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증언입니다.

신성모독으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아그리파스 이야기는 당대 유대인 역사가였던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신인 양 자만하다가 최후를 맞았다는 이야기인데, 아그리파스 1세는 이렇게 하여 기원후 44년경 54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르나바와 사울의 귀환과 요한 마르코(사도 12,24-25)

루카는 다시금 하느님의 말씀이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나갔다고 전합니다. 루카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드디어 바오로가 이야기의 전면에서 등장합니다. 이 점은 ‘바오로’라는 이름이 사도 13,9에서 처음 사용된다는 점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르나바와 사울은 안티오키아에서 모금한 구호현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뒤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안티오키아로 돌아옵니다. 여기 언급되는 마르코는 초대 교회의 모임 장소를 제공하던 마리아의 아들로(사도 12,12), 바르나바와 사울의 첫 선교여행에 따라나선 인물입니다(13,5). 나중에 그는 베드로와 사도 바오로의 통역관으로 활동했으며(콜로 4,10; 2티모 4,11; 필레 1,24; 1베드 5,13), 마르코 복음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르나바와 사울의 파견(사도 13,1-3)

바르나바와 사울이 돌아오자 안티오키아 교회는 그들을 뽑아 선교사로 파견합니다. 이렇게 하여 학자들이 바오로의 1차 선교여행이라고 부르는 여정(사도 13,4-14,28)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여행은 키프로스 and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땅끝까지 당신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사도 1,8)을 수행하는 제자들의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피난 간 소떼

조민아 마리아 교수/ 조지타운대학교

지평과
초월

‘유례없는’이란 표현이 2020년에는 식상한 말이 되어버렸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전 지구를 초토화한 역병, 유례없는 경제 위기와 실업난에 이어, 유례없이 큰 규모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기후 재앙이 세상을 위협하고 있다. 가뭄과 폭염이 원인이 되었던 호주의 초대형 산불은 올해 초까지 계속되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야생동물의 목숨을 앗아갔고 무려 4억 3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시켰다. 유럽을 넘어 러시아 극동까지 펄펄 끓는 폭염이 계속 되는 동안 시베리아 일부 지역에서는 수은주가 급강하하며 때 아닌 눈이 내리기도 했다. 폭발적으로 개체수가 증가하며 습격의 강도를 높이는 바람에 ‘마른 쓰나미’라는 별명이 붙은 아프리카의 메뚜기 떼는 하루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해치우며 파키스탄과 인도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5월 말부터 동아시아 각 지역에 물 폭탄을 떨어뜨리던 장마 전선은 이제 한반도를 덮쳐 역대 최대 규모의 폭우 피해를 주고 있다.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김용택, 섬진강 1 중에서) 살아있는 것들을 보듬고 이어주던 고즈넉한 섬진강이 시뻘건 흙탕물이 되어 화개장터를 삼켰다.

참담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피해 소식을 읽던 와중 나는 전남 구례의 피난 간 소떼 이야기에 멈춰 한참을 머물렀다. 섬진강 홍수로 물에 잠긴 축사를 탈출해 도보로 한 시간은 족히 걸리는 해발 531m의 사성암을 찾은 소들 이야기 말이다. 빗물이 다리까지 차오른 축사를 벗어난 녀석들이 이끄는 이도 없이 아스팔트와 산길을 저벅저벅 함께 걸어 찾아간 곳이 잡아먹힐 걱정 없는 스님들의 품이었다는,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다행스러우면서 또 슬프고 가여운 이 이야기가 내겐 어쩐지 우리 시대의 우화처럼 들린다. 녀석들도 이미 알고 있을지 모른다. 이 ‘유례없는’ 기후 재앙이 실은 술한 유례가 있었던, 오히려 멈춘 적이 없었던 인간의 욕심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 살육의 역사에 결국 인간들도 스스로 잡아먹힐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미 알려졌듯, 2020년 지구의 불바다와 물바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의 공통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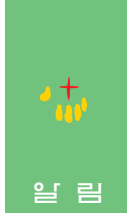


인 원인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땅의 황폐화, 야생동물 수렵, 자원 고갈이다. 지난 7월 6일, 유엔은 “차후 팬데믹 예방: 인수공통감염병 확산 방지 방법(Preventing the Next Pandemic: Zoonotic diseases and how to break the chain of transmission)”이란 보고서에서,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팬데믹 등, 20세기 들어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바이러스가 옮겨 가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발병의 원인은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 가뭄, 홍수 등의 극단적 기상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과 더불어, 끊임없는 수렵과 벌목으로 야생동물의 다양성이 줄고 서식지가 파괴되는 현실에 있다고 분석한다. 생태계 교란을 통해 동물의 행동 습성이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동이 잦아지며 바이러스들이 원래의 숙주를 빠져 나와 보다 안정적인 새로운 숙주를 찾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환경 파괴가 계속되는 한 기후 재앙은 더욱 빈번해지고 규모가 증폭될 것이며, 인수공통감염병 또한 모습을 바꾸어 지속해서 등장하게 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매년 기후 재앙이 닥칠 때마다 생태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반짝 높아지다가, 복구와 더불어 다시 개발과 발전 논리에 먹히고 마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마치 종말을 경험하는 듯 절박했던 코로나 팬데믹 또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해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대부분 ‘올드 노말’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반복되는 재앙으로 인해 얻는 교훈이 그저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지는 “돌아갈 수 있다”는 데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자연은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아프게, 스스로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인간에게 호소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프란치스코 교종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 반포 5주년을 맞아 올해 환경의 날(6월 5일) 가톨릭교회가 발표한 담화문은 의미가 깊다. “성장 신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라고 이름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강우일 주교는 “성장과 개발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생태계 보전과 생명의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대전환’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위기,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한 지구 생태계의 수많은 위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이웃과 아파하는 생태계를 외면했는지 돌아보고, “물질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생명 중심의 가치관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방식의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 중심의 가치관이란 신학자 샬리 맥페이그(Sallie McFague)가 말했듯,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몸의 세포들로부터 가장 섬세한 정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에 속해 있다는 것, 바위와 파도, 대기와 흙, 식물들, 광물들과 더불어 세상의 모든 것들과 함께 어우러진 한 몸이라는 깨달음이다. 그 한 몸 생태계는 다름 아닌 하느님의 몸이기에, 생명 중심의 가치관은 또한 하느님 중심 가치관의 다른 이름이기도하다. 그 생명 중심, 하느님 중심 가치관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은, 인간의 발전과 성장이 효율과 이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움과 나눔과 돌봄으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하느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보니 구례의 소들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가 싶기도 하다. 흙탕물이 차오는 냇을 버리고, 서로 의지하며 낮은 길을 걸어가 다른 생명들을 믿고 몸을 의탁한 그들의 모험 이야기는 정말 하느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화일지도 모른다.



교구/본당

재무평의회

일시: 8월 18일(화) 10:00

장소: 교구청

46차 창세기 연수

일시: 8월 21일(금) 16:00~23일(주일) 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강사: 서시몬(시몬) 신부

대상: 창세기 성경그룹공부를 수행하고

연수 신청서를 제출한 청년

문의: 임기호 보니파시오 010·6245·4967

파견미사: 8월 23일(주일) 14:00

3차 청년교리 연수

일시: 9월 5일(토) 14:00~6일(주일) 14: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

대상: 가톨릭 신앙을 가진 모든 청년

참가비: 1인 6만 원

주제: 교회의 시선으로 세상 바라보기

신청: 8월 30일(주일)까지,

선착순 20명 마감(전원 1인실)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 검색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일시: 8월 19일(수) 10:00

장소: 평거동 성당

문의: 가정사목부 055·249·7028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봉사자 교육

일시: 하반기 - 8월 22일(토), 8월 23일(주일),

9월 6일(주일)

09:30~18:00 (총 3일)

장소: 교구청 4층 회의실

문의: 가정사목부 055·249·7028

교리교사 하계피정

일시: 8월 22일(토) 14:00~23일(주일) 14:3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주제: 그리스도인의 돌봄 교육

대상: 초·중고등부 교리교사

준비물: 마스크, 미사준비, 개인컵, 필기구,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문의: 청소년국 055·249·7051~2

성경봉사자 성경특강 및 개강미사

일시: 8월 22일(토)

장소: 교구청

문의: 성경부 055·249·7025~6

노인학교 봉사자 연수

일시: 8월 24일(월) 09:30~17: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노인학교 봉사자, 노인사목관련 봉사자, 장소: 교구청 강당

노인학교 담당 수도자

준비물: 필기도구, 미사 준비

교육비: 3만 원(교재비 및 재료비 포함)

신청: 8월 14일(금)까지

계좌: KEB하나 160-890012-14304 (재)마산교구

※ 입금 시 '본당+노인학교'로 기입.

(예-양덕노인학교)

문의: 사목국 055·249·7021~3

소공동체장 교육

일시: 8월 31일(월) 10:00~15:30

장소: 상남동성당

대상: 신임 소공동체장

준비물: 필기도구, 개인컵

참가비: 1인 1만 원(자료집, 점심 제공)

신청: 8월 21일(금)까지

계좌: KEB하나 160-890012-14304 (재)마산교구

※ 입금 시 '본당명+신임'로 기입. (예-양덕신임)

마감일까지 반드시 입금바랍니다.

문의: 사목국 055·249·7021~3

FAX - 055·249·7024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평신도 체나폴로 8월 기도회 모임

일시: 8월 17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강당

제주성지순례 3박4일 28만원

성지 7개, 신부님 동행,
각 지역 공항 출발, 특급 호텔

마르코 투어 010-5150-2625

SM 수맥홍(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1588-5335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010-2652-0706

40년 전통 <팔보효소>
생활철학 · 효소단식

▶미 · 중국 수출 ▶부모님 건강 선물
▶간헐적단식 ▶해독요법 ▶효소피장

▶지리산 산청 발효 · OEM 전문
www.palbo.co.kr ☎1600-0830

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교구보 광고 후원은 복음전파를 위한
봉헌입니다.

■문의: 미디어국 055)249-7072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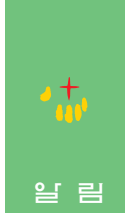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함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055.391.1205

진해시니어클럽 자연 숲
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sc.or.kr
055.541.0126, 055.605.6297



준비물: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 마스크 착용 필수, 미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민족화해위원회 위원 연수

일시: 8월 21일(금)~22일(토)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055·261·8201

204차 ME주말 안내

일시: 9월 11일(금) 19:00~13일(주일) 17:30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일시: 혼인한지 3년 이상 된 부부

신청: 9월 4일(금)까지, 전화 및 문자로 접수
(문자 발송시 부부 이름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한진우(미카엘)·문희숙(미카엘라) 부부
010·9150·8738, 010·6281·7859
E-mail: mun760216@hanmail.net

수도회

렉시오 디비나 피정 (말씀으로 기도하기)

내용: 유덕현 야고보 아빠스와 함께하는
자연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일시: 매주(토) 14:00~(주일) 14:00 1박 2일

장소: 고성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010·2816·1986

마산 재속 맨발가르멜회 지원자 모집 안내

관상적 기도와 사도직에 관심있으신 분

대상: 만 55세 이하의 남녀 신자

문의: 010·8525·1150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녀회 성소자 만남 및 상담

일시, 장소: 전화 면담 후 결정

대상: 국·내외 전교와 봉사에 관심있는
39세 이하 미혼여성

문의: 강피아수녀 010·3679·7198

가르멜 수도자와 함께하는 수도원 체험

일시: 10월 30일(금)~11월 1일(주일)

장소: 마산가르멜수도원

문의: 010·2140·7414

기 타

제주 성지 순례 3일 (가톨릭사회경제연합)

일시: 8월 24일~26일, 9월 14일~16일,
9월 21일~23일, 10월 9일~11일

장소: 제주 성지 7곳 (성지해설)

문의: 064·805·9890

※ 한국성지 167완주 순례 모집

2021년 양업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 가톨릭 유일의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 아시아 최초의 좋은 학교(Q.S) 인증

일시: 9월 7일(월)~22일(화)까지

모집: 전국 전 지역

문의: 충청북도 청주 양업고등학교
043·260·5076

성전 장의자 드립니다.

산호동성당 성전에서 사용하던 장의자를 드립니다. 원하시는 곳에서는 문의바랍니다.

문의: 본당 사무실 055·241·6748

복신동본당 제14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정수범(아우구스티노)

사목부회장(남성): 강진열(발렌티노)

사목부회장(여성): 이정화(호임골롬바)

총무분과위원장: 김종철(베드로)

기획분과위원장: 강규석(스테파노)

복음화분과위원장: 양해석(반첸시오)

노인분과위원장: 최문자(벨라지아)

홍보분과위원장: 류삼중(프란치스코)

가정사목분과위원장: 이태섭(요셉)

전례분과위원장: 최귀정(실비아)

구역분과위원장: 김수옥(테레사)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장명오(명학다미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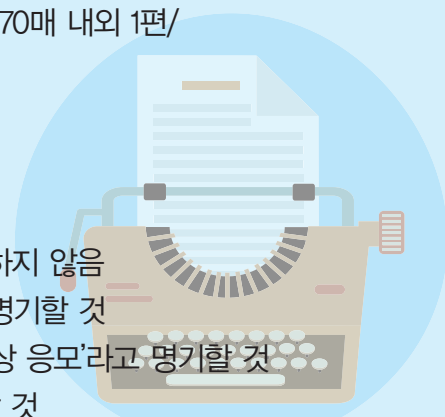
시설관리분과위원장: 김현우(미카엘)

청소년분과위원장: 김현철(안드레아)

꾸리아: 박인숙(루치아)

제14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미디어국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 (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레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프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빛나간 열정熱情

고성 가르멜 여자 수도원



4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의 원인은,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으로 멈추지 않고 질주해 온 결과라고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 달리는지도 모르고 생태계를 마구 불태우기만 했던 열정이 파괴적인 결과로 고스란히 인간에게 되돌아와, 지금까지 받아온 열기를 뿜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느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을 때도 많지 않을까 성찰하게 됩니다.

가르멜 수도회에서 성조로 모시는 엘리야 성인은 가르멜 산에서 바알 사제들과 대결을 벌일 때 제물로 바칠 황소 위에 네 항아리의 물을 세 번씩이나 붓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엘리야 성인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지녀야 할 봉헌의 참된 자세를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열정, 자신을 소진 시켜버리는 내 방식대로의 불을 모두 잠재우려는 듯 -오직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합당해 보이는 모든 인간적인 욕심들을 물에 잠기게 해버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 쌓은 제단에서 엘리야 성인이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가 이 모든 일을 하였음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1열왕 18,36).”라고 하느님께 기도드리자 하늘에서 ‘주님의 불길’이 내려와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아주 강한 만남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 하느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 대답도 없으시냐고 주저앉아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절망의 순간을 만납니다. 어쩌면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엉뚱한 하늘을 바라보며 응답 없는 하느님을 원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정의 예언자로 불리는 엘리야 성인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에까지 ‘불’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처럼 열정은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불태우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했다는 데에 만족하며 열정 자체를 목표로 삼게 되면 어느새 나 자신을 하얗게 태워버린 자리에 자애심만 가득 채워놓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열정이 하느님께로 올바르게 향하고 있는지 알려줄 이정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제1독서의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이사 56,7).”라는 구절에서 ‘기쁨’이라는 이정표를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선교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일흔두 제자들을 통해 하느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음을 보시고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감사드리셨고, 성모님께서도 마니피캇을 노래하시며 당신 안에 이루어진 하느님의 업적을 찬양하며 기뻐하셨습니다. 당시 유다 사회에서는 처녀가 잉태하면 율법으로 단죄받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토록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우울한 성인은 없다.”는 말처럼 성인들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열정이 하느님께로 정향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한 번 내리시면 그 뜻을 이루고야 마는 하느님의 말씀이 맺은 풍성한 열매를 알아보고 늘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와 우리나라, 우리 각자가 처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성모님과 모든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